



스마트폰

ODM 확대가 미칠 영향



자체 생산을 고수해 온 삼성전자가 ODM 확대 전략으로 돌아선 듯 하다. Huawei, Xiaomi 등과 중국, 인도에서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국내 부품 업계는 대체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출하량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이고, ODM Vendor로 지정되더라도 판가를 희생해야 할 것이다. ODM 대상이 아닌 Flagship 모델 부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ODM 확산 불가피, 삼성전자 전략 변화 주목

스마트폰 부품 업계에 ODM이 불편한 화두가 되고 있다. ODM은 제조 위험을 떠안지 않고 저가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점유율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품질 보장이 어렵고, 기존 부품 생태계가 위축되는 단점을 가진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중국 업체들 주도로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ODM 확산은 불가피한 추세다. Huawei, Xiaomi 등이 외주 생산을 활용해 점유율을 늘려 왔고, 국내 업체들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스마트폰의 ODM/EMS 생산 비중은 지난해 54%에서 2023년 66%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만큼 중화 ODM/EMS 업체들의 품질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FIH Mobile, Wingtech, Longcheer, Pegatron, Huaqin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자체 생산을 고수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ODM을 도입해 300만대를 맡겼고, 올해 3,000~4,000만대로 확대하며, 내년에는 1억대까지 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갤럭시 M시리즈 및 저사양 A시리즈가 대상일 것이고, 올해 갤럭시 A10s와 A60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OD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부품 선정에 관여하는 절충된 ODM 형태의 합작개발생산(JDM)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Wingtech와 ODM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Hauqin과 제휴를 맺었다.

LG전자도 스마트폰 적자 축소 및 사업 구조 효율화를 위해 ODM을 활용할 것이다. 현재 FIH Mobile, Wingtech, Arima, Wind 등과 협력 중이다. 베트남 생산 체제가 정착되는 내년에는 스마트폰 생산량의 30% 이상을 ODM에 의존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부품 업계 부정적, Flagship 부품에 초점

ODM 확산은 국내 부품 업계에 대체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출하량(Q)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이고, JDM에 참여하더라도 재료비 원가 확보를 위해 부품 판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ODM 대상에서 제외되는 Flagship 모델 위주로 탑재량이 늘거나 평균 판가가 상승하는 부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HDI, 케이스, 디스플레이, 저사양 카메라모듈(렌즈, 액추에이터 포함), 저사양 배터리 등이 부정적일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고사양 카메라모듈, MLCC, 고사양 배터리 등은 중립적일 것이다.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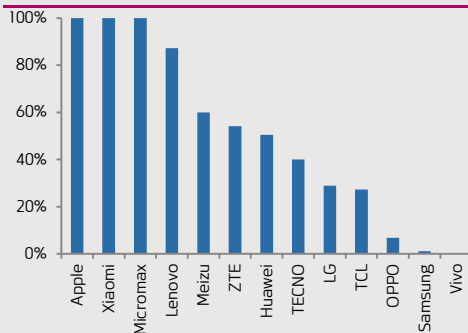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RA 오현진

02) 3787-5299 ohj2956@kiwoom.com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외주 생산 비중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외주 생산
비중 증가 추세

ODM은 제조업체가 설계부터 부품 조달, 조립 생산까지 직접 맡는 방식이다. OEM과 달리 연구 개발과 부품 업체 선정에서 자유롭고, 신속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JDM은 주문자가 최종 조립 전 단계까지 관여한다는 점에서 절충된 ODM 형태로 볼 수 있다.

Gartner에 따르면, 스마트폰 외주 생산 비중이 2013년 39%에서 지난해 54%로 지속적으로 증가 했고, 2023년에는 66%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Apple, Xiaomi, Micromax 등은 전량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Lenovo 87%, Meizu 60%, ZTE 54%, Huawei 50% 순으로 외주 생산 비중이 높다.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해 온 삼성전자와 OPPO도 지난해부터 ODM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LG전자도 외주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30달러 이하 모델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중국과 인도가 ODM의 주된 목표 시장일 것이다.

상위권 ODM/EMS
지배력 강화

주요 ODM/EMS 업체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 기반의 Wingtech, Longcheer, Huaqin, BYD, Tinno, Wind 등과 대만 기반의 FIH Mobile(Foxconn 자회사), Pegatron, Wistron, Inventec, Compal, Arima 등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이 중 상위 8개사가 지난해 71%를 점유했다.

ODM 업체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속한 제품 설계 능력, 글로벌 부품 조달 및 물류 서비스 역량이 중시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낙점한 Wingtech는 지난해 8,750만대를 생산해 ODM 분야 1위를 달성했다. 주요 스마트폰 파트너는 Xiaomi, Huawei, Lenovo 등이다. 저가형 스마트폰 위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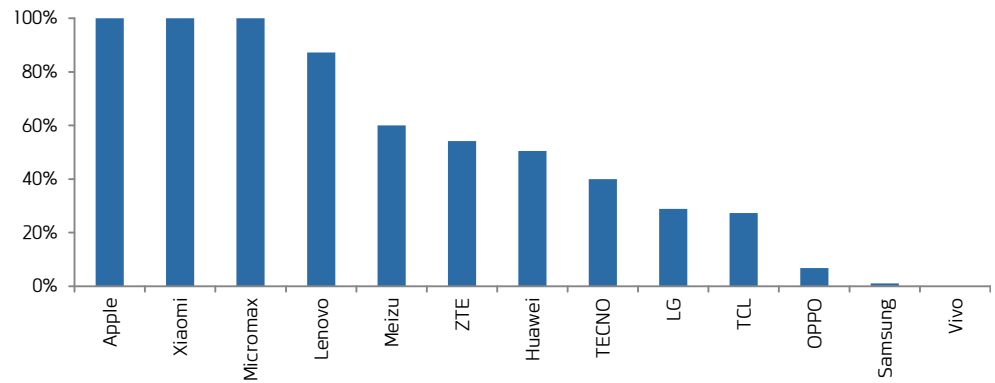
FIH Mobile은 Foxconn의 자회사로서 아이폰 생산 비중이 59%이며, Huawei, Xiaomi, LG전자, Lenovo, Meizu 등으로 고객 다변화를 이루었다.

스마트폰 외주 생산 현황(2018년)

	Samsung	Apple	Huawei	Xiaomi	OPPO	Vivo	LG	Lenovo	ZTE	TCL	TECNO Mobile	Meizu	Micro-max	Gionee	Wiko	Others	Total
FIH Mobile		125.0	25.0	12.0			4.0	3.0	2.0	1.0		3.0				35.5	210.5
Wingtech	3.0		18.0	40.0	8.0		4.0	8.0				1.5	1.0			4.0	87.5
Longcheer			9.0	35.0				18.0		2.0			1.0			3.0	68.0
Pegatron		60.0														6.0	66.0
Huaqin			25.0	25.0								2.0	1.0			7.0	60.0
BYD			20.0													12.0	32.0
Tinno															10.5	19.5	30.0
Wistron		24.0														4.0	28.0
Wind							2.0		1.0	3.0		1.0				7.5	14.5
Inventec				10.0													10.0
Compal								2.0								7.0	9.0
Arima							3.0									5.0	8.0
Others			5.0					3.0	10.0		7.6		8.0			163.9	197.5
In-House	292.0		100.0		111.0	101.0	32.0	5.0	11.0	16.0	11.4	5.0		10.5		13.1	708.0
Total	295.0	209.0	202.0	122.0	119.0	101.0	45.0	39.0	24.0	22.0	19.0	12.5	11.0	10.5	10.5	287.5	1529.0

자료: Gartner, 키움증권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외주 생산 비중



자료: Gartner, 키움증권

삼성전자 A10s



자료: 삼성전자

LG전자 W10



자료: LG전자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8/07/01~2019/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61	95.83%
중립	7	4.17%
매도	0	0.00%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